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진실을 만나다-밀레

광주 -3/2℃ 목포 -2/2℃ 여수 -2/3℃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단기 4345년 (음력 11월 13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388호 1판 2012년 12월 25일 화요일

광주:호남고속도로 확장, 5·18 아카이브, 이노비즈 센터

전남:F1 운영비, 압해~암태 새천년 대교, 양식섬 조성

꼭 챙겨야 할 지역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심사에 들어가면서 광주시·전남도 관련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상주하며, 정치권을 상대로 막바지 예산 따내기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대선 여파로 예산 심의가 늦춰져 일정이 빠듯하고, 통상 지역예산으로 배정됐던 정부예산 삭감액도 적어 지자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F1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비 지원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시는 오는 26일께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병호 기획조정실장 등 시 간부와 예산 담당 직원 등 10여명은 국회를 방문해 마지막 국비 확보전에 나선다. 시는 예결위가 끝나는 시점까지 서울에 관련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7개 공약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동광주~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용역비 50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 설립 70억원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 16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기본 설계비 30억원 ▲경전선(광주~순천간)전철화 설계용역비 50억원 ▲금형수주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하이테크몰드 허브구축 시험장비구축비 202억원 ▲국립 물연구소 광주설립 용역비 10억 ▲5·18아카이브 구축 132억원 ▲미래형 치과산업벨트 구축 용역비 78억원 ▲CT연구원 기반구축 설계비 70억원 ▲광주 이노비즈센터 건립 100억원 등 26개 사업 1조5795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전남도는 지난 23일부터 정순남 경제부지사와 예산 관련 공무원을 국회로 급파,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남도는 예산 심의가 사실상 끝날 것으로 보이는 26일까지 서울에 상주하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따낸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예산 중 삭감액이 과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1조5000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역 안배로 나눠줄 것으로 보고, 사업별 우선 순위를 정해 시급한 예산부터 확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F1 운영비(240억원) ▲신안 하의~신의간 연도교(156억원) ▲차부품 연구개발사업(130억원) ▲양식섬 조성(85억5000만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100억원) ▲진도항 배후지 개발(71억원) ▲신안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건설(1000억원)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1133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간 연결도로(200억원) ▲여수 나진~소라간 국지도 보상(350억원) ▲보성~임성간 철도(600억원) 등 11개 지역현안사업(총 4065억여원) 우선 순위를 선정했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각 정당이 자신들의 정치색이 담긴 예산을 강요하기 보다는 대선 과정에 약속한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동센터 찾은 '사랑의 산타' 광주시 북구 오치2동주민센터 공무원자원봉사동아리 '한우리' 회원들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캐롤을 부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J프로젝트 10년만에 첫 삽 뜬다

문광부 구성지구 실시계획 승인…내년 상반기 공사 시작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구성지구의 실시계획이 승인돼 이르면 내년 초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사업 구상 10년, 기업도시 지정 8년이 지나는 동안 지지부진했던 J프로젝트는 일부 지구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전남도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공동 제안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행정 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시행사는 내년 상반기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성지구(해남군 산이면·21.87㎢) 공사는 1·2단계로 나눠 사업비 9000억원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토지매립과 진입도로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골프장, 레저주택, 골프빌라, 시니어 빌리지 조성과 호텔 및 리조트, 통합의학병원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문화부는 이와 별도로 민간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차선 진입도로 조성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이 기업도시가 개발되면 1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11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부지 잔여대금 918억원을 납부해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도 해결했다. 농어촌공사가 주인인 간척지 땅을 사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참여 기업이 전체 부지 매입비 1020억 중 계약금 102억원만 납부한 뒤 땅값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었다. 지난 2003년 프로젝트 구상 및 검토작업을 시작한 J프로젝트는 삼호·구성·삼포·부동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투자자가 나타난 삼포지구와 구성지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구는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도

朴당선인 5·18묘지 참배 이뤄질까

"국가원수 당연한 통합행보"

5월단체 집행부 환영 분위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을 추진〈광주일보 24일자 3면〉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5·18단체들의 입장과 움직임에 지역은 물론 전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 김대중 전 대통령만이 당선 직후 5·18묘지를 참배했으며, 김영삼·노무현·이명박 등 전·현직 대통령들은 취임 이후 5·18기념식에 참석했으나 그때마다 5월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5월 단체들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심지어 물리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국가 기념일인 5월18일만 되면 대통령 경비를 위해 전국의 경찰이 광주로 집결했다. 거의 대부분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반대 시위가 열렸고, 심지어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피해 기념식 후 행사장 뒷문으로 빠져 나가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취임 전에, 그것도 당선인 신분으로 5·18묘지 참배를 검토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대통합의 상징적인 행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단체의 한 대표는 "5·18묘지는 국립묘지"라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참배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사실상 5·18의 직접적인 가해 당사자가 아닌 만큼 현재로선 반대할 논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이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 당선인인 만큼 참배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당선인으로서 5월 단체 회원들을 만나고자 한다면 (개인 의견이지만) 응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5·18 관련 단체의 그동안 동향으로 볼 때 당선인의 참배에 대해 일부 회원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단체의 대표나 집행부 인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큰 것도 사실이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21일 광주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선인과 당 내부에서 박 당선인의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광주를 방문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朴당선인 비서실장에 유일호

수석 대변인 윤창중, 대변인 박선규·조윤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당선인 비서실장에 유일호(57) 의원, 수석 대변인에 윤창중(56) '칼럼세상'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또 남녀 대변인으로는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박선규(51) 전 청와대 대변인과 조윤선(46) 전 의원을 발탁했다. 〈관련기사 3면〉

새누리당 공보단장을 지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이 브리핑 직전에 이 최고위원에게 직접 인사 결과를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 당선인의) 추가 인선 배경 설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의 비서실장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과 오래 전부터 정책 등에 대해 대화를 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유 신임 비서실장은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재선 의원이다. 서울대 경제과를 졸업한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5공 시절 야당인 민주한국당 총재를 지냈던 고(故) 유치송 전 국회의원의 외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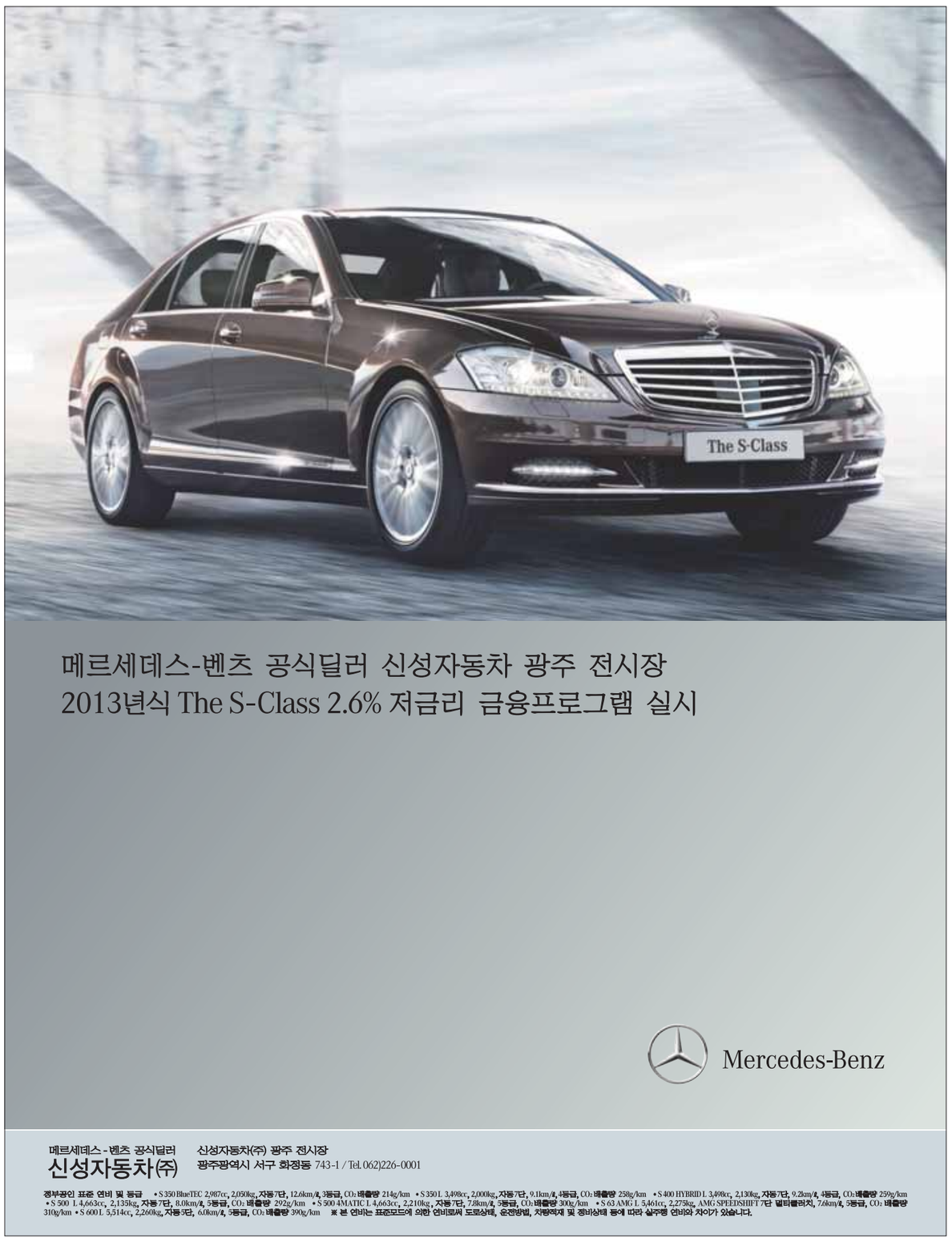
윤 수석 대변인은 고려대 졸업 후 KBS기자, 세계일보 정치부장, 문화일보 논설실장을 거쳐 현재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하고 KBS기자와 앵커로 활동하다가 2008년 6월 청와대 언론2비서관으로 합류해 청와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지냈다.

조 대변인은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으로 발탁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으며 2008~2010년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번 유 실장과 윤 수석대변인 인선은 발표 전까지도 거론되지 않아서 '깜짝 인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또 유 실장과 조 대변인은 서울, 윤 수석대변인은 충남 논산, 박 대변인은 전북 익산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 탕평을 배려한 인사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일호 비서실장

윤창중 대변인

박선규 대변인

조윤선 대변인